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고품질화 ·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하는 기업

그린파이프산업



그린파이프산업 임진 공장 전경

그린파이프산업(대표 : 박운용)은 폐비닐이나 필름류 포장재 등을 재활용하여 하수관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전국에 100여곳의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95년 경기도 파주에 공장을 설립한 그린파이프산업(주)는 폐기처분 되고 있던 다층필름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초강성 그린 3중적층관을 개발하여 연간 3000~4000ton에 달하는 폐비닐을 처리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충남 당진에 8천여평 부지에 재활용 공장이 신설 확충됨으로서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 공장은 금년 10월 중순경 가동할 예정이다.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린파이프산업은 그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생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왔으며, 그 결과 한국화학시험연구소로부터 품질보증업체로 지정받았고,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다층구조의 플라스틱 휴관 및 그 제조방법과 제조장치"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국제특허출원 1건, 국내특허1건, 특허출원 3건, 실용신안 등록 3건, 의장등록1건 등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그린파이프산업의 주 생산품에는 콘크리트나 PE 휴관 대체품으로 생산되는 그린3중적층관과 외압강도에 대한 대응력이 월등해 주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골프장, 대운동장 등의 배관으로 사용되는 그린적층유관관이 있



다. 박운용 대표에 의하면 기존 PE제품 등에 비하여 외압강도나 내구성,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등 품질을 크게 개선시켰음은 물론 제품가격이나 시공 및 유지관리비를 낮추어 경제성도

뛰어나 향후 시장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함께 조달청

고품질 추구를 통한 기술력 인정과 구매승인 획득, 안정적 제품 수요처 확보 등 재활용 제품의 시장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남다른 노력도 돋보인다. 특히 필름류 포장재와 같이 아직까지 재활용 제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곳곳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해나가고 있어 재활용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품 생산, 판매의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계 필름류 포장재의 사용을 최대한 증가하면서 재생제품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에서부터 최종 재활용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기술 보안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배출 정착,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 등 국가 EPR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적층유관관

그린3중적층관